

<서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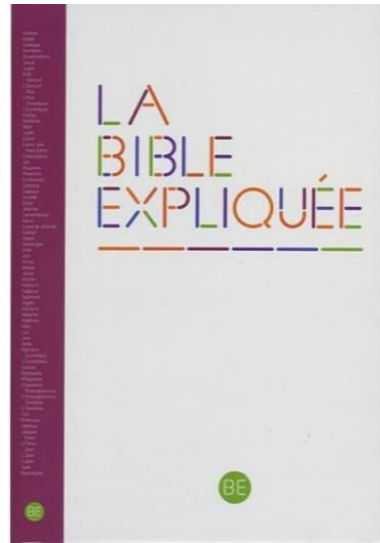
La Bible Expliquée

(Villiers-le-Bel: Société biblique française - Bibli'O, 2004)

김선종*

1. 머리말

프랑스성서공회는 캐나다성서공회와 연합하여 2004년 9월에 비블리오 출판사(Bibli'O)를 통해 해설 성경을 내놓았다. 이 해설 성경의 이름은 프랑스어로 『해설 성경』(*La Bible Expliquée*, 앞으로 BE로 약함)으로, 외경을 포함하지 않는 개신교용 해설 성경과 외경을 포함한 해설 성경의 두 종류가 있고, 책값은 외경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29.5유로이다. 이 서평에서는 외경을 포함한 해설 성경을 다루는데, 이 성경의 쪽수는 대략 1800쪽이고(머리말 19쪽, 구약 1385쪽, 신약 362쪽, 부록 22쪽, 지도 5쪽), 크기는 가로 16.5 센티미터, 세로 23 센티미터, 무게는 1570 그램이다.



<그림 1> BE의 겉모양

이 성경은 1982년에 초판이 발행되고, 1997년에 개정된 『상용 불어 성서』(*français courant*)를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에 실려 있는 네 개의 컬러 그림 지도(구약주변세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땅, 예수 당시의 땅, 바울의 여행지도)는 독일성서공회가 판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1963년, 1978년, 또한 1997년에 엘리거(K. Elliger)가 간행하고, 미트만(S. Mittmann)이 개정한 것이다.

* Université de Strasbourg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호남신학대학교 조교수. sjkim@htus.ac.kr.

이 서평에서는 이 해설 성경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통한 가치를 따져볼 텐데, 이 성경을 7년 뒤 2011년에 프랑스성서공회가 같은 출판사에서 내놓은 *ZeBible*에 견주어 살펴보면, BE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¹⁾

아래에서는 BE의 출판 목적과 성과, BE의 짜임새와 머리말, 본문 해설의 내용과 특징, 또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출판 목적과 성과

BE는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데에서 새로운 해설 성경의 출판 동기를 찾는다. 가톨릭교회는 성경을 주로 교의의 관점에서 읽었고, 16세기 이후의 개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개인의 성경 해석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BE는 새로운 해설 성경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1990년대에 주변국가나 프랑스에서 출판된 해설 성경 - 특별히 『삶에 적용하는 해설 성경』(*Life Application Study Bible*, 1996)과 『기독교 공동체들의 성경』(*La Bible des Communautés Chrétiennes*, 1995) - 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당위성을 가지고 새로운 해설 성경을 기획한다. BE 편집진의 입장에 따르면, 『삶에 적용하는 해설 성경』은 근본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독자들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려는 경향이 강하다면, 『기독교 공동체들의 성경』은 반 섹족의 경향을 지니고 있어 더 이상 배포되지 않는다.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 경향의 약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리며, 기존의 해설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것이 BE가 설정한 해설 성경의 방향성이다. 곧 무엇보다 교리적인 해설을 배제하는 것인데, BE의 편집진은 성경 본문의 해설에서 영적인 성찰을 피하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능한 한 줄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 본문 자체가 주는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는 집필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새로운 해설 성경의 필요성에 따라, 프랑스성서공회는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와 복음주의 교회²⁾가 연합하여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1) 김선종, “〈서평〉 *ZeBible*”, 『성경원문연구』 35 (2014), 351-369.

2) 통상적으로 프랑스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는 가톨릭과 개신교(루터교회, 개혁교회)이고, 개신교의 나머지 교단은 복음주의로 묶어 부른다.

해설 성경을 만들기로 캐나다성서공회에 제안하고, 이에 두 나라의 성서공회는 의견을 함께 모은다. 그리하여 이들 성서공회는 집필자와 교정자와 재정 후원자의 모든 측면에서 역할을 반씩 나눈다. 또한 BE의 제작 과정에는 성서학자와 목회자가 함께 참여하는데, 성서학자 한 명과 목회자 한 명이 한 조가 되어 본문 해설을 쓰면, 각각 개신교와 가톨릭, 또한 복음주의에 속한 세 명의 편집 위원들이 한 조가 되어 해설의 내용을 점검한다. 그리고 마지막 편집 단계에서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편집 위원들이 전체 성경을 반으로 나누어 맡아 교정한다. 이 작업을 위하여 80명의 성서학자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자신이 속한 종파나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전제는 놓아두고, 성경 본문 자체가 주는 의미를 찾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앞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시도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에 관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특별히 프랑스는 16세기에 극심한 종교 전쟁을 겪으며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오랜 반목과 갈등이 있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복음주의 교회가 함께 해설 성경을 집필하고, 주로 개신교로 이루어진 프랑스성서공회가 가톨릭교회와 함께 작업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기도 했다. 종파가 연합하고 여러 저자들이 협력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일치와 연합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러한 연합 사업은 성경 배포에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에 걸쳐 작업하여 완성된 BE는 35000부의 인쇄본 가운데 반포한 지 두 달 만에 17,000부가 팔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³⁾

3. 『해설 성경』의 짜임새와 머리말

BE는 머리말(V-XIX쪽), 구약(1-1385쪽), 신약(1-362쪽), 부록(363-384쪽), 지도(5쪽)로 짜여 있다. BE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6쪽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해설 성경의 머리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머리말에는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설 성경을 현실화했는가?’, ‘주요 협력자’, ‘차례’, ‘부호와 약어’, ‘성경의 알파벳 목록’, ‘성경, 하나의 특별한 책’이라는 항목으로 해설 성경의 편찬 목적을 밝히고 있다.

3) 이 부분(‘출판 목적과 성과’)은 BE의 편집 위원 가운데 한 명인 Jean-Louis d'Aragon이 “『해설 성경』 -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La Bible Expliquée : La Parole à la portée de tous*)”이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어권 캐나다와 아이티의 예수회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을 주로 참조한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http://www.jesuites.org/LaBibleExpliquée1.htm>을 보라.

3.1. 해설 성경의 편찬 이유와 방법

‘왜 그리고 어떻게 해설 성경을 현실화했는가?’(Pourquoi et comment a été réalisée La Bible Expliquée?, V-VI쪽)의 단락에서는 새로운 해설 성경을 편찬한 이유와 어떻게 편찬했는지, BE의 형태와 편집 방향과 목적과 방법을 알려준다.

이 단락에서는 BE를 기획한 이유를 네 가지로 든다. 첫째로, 대부분의 그리스도교인들이 신학 교육을 받으며 성경을 전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설 성경을 기획한다. 둘째로, 성경에는 오늘날의 삶과 사상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상들 - 예를 들어, 진멸법처럼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부추기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지닌 본문 - 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에게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문화나 역사의 배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셋째로,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성경에서 독자가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와 복음주의 교회가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건강한 해설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BE는 성경을 읽는 평범한 독자들이 주석이나 연구서를 실제적으로 참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쉽고 빠르게 줄 수 있는 해설 성경을 기획한다. 주석과 연구서의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BE의 편집자들이 편찬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이 해설 성경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옆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하는 본문 옆에 본문 해설을 위치시킨다. 이것은 독자들이 성경 본문에서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손쉽게 정보를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설 본문은 성경 본문과 다른 색으로 기술하여, 독자들이 효과적으로 설명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신학 전문용어가 나올 경우에는 그 용어 앞에 별표를 두어, 성경의 부록에 있는 용어 해설(vocabulaire)의 도움을 얻도록 한다. 둘째로, 편찬의 이유에서 보

ÉVANGILE SELON MARC

Des quatre Évangiles, celui de Marc est le plus court et très probablement le plus ancien.

Dieu les premières lignes, il présente Jésus comme le « fils de Dieu » (1:1). Marc se situe étonnamment précocement à plusieurs reprises tout au long de l'évangile (1:7, 9, 11, 13, 15, 16) pour insister sur le fait que Jésus n'est pas seulement un homme, mais qu'il ne peut être compris qu'en contemplant, avec l'œil du croyant, Celui qui est mort sur la croix.

Respectant, lorsqu'il est évoqué par lui, le fait que Jésus soit un être divin, Marc ne présente pas Jésus comme un être divin, mais comme un être humain qui est mort sur la croix.

Après avoir lu soigneusement le texte de l'évangile de Marc, vous pouvez constater que Jésus est un être humain qui est mort sur la croix.

Après avoir lu soigneusement le texte de l'évangile de Marc, vous pouvez constater que Jésus est un être humain qui est mort sur la croix.

Après avoir lu soigneusement le texte de l'évangile de Marc, vous pouvez constater que Jésus est un être humain qui est mort sur la croix.

Un verset qui est Dieu

1 Marc 1:1-2:14

La prédication de Jean-Baptiste

1 Marc 1:2-11

Les premiers vers de l'évangile de Marc

1 Marc 1:1-2:14

Les premiers vers de l'évangile de Marc

1 Marc 1:1-2:14

Les premiers vers de l'évangile de Marc

1 Marc 1:1-2:14

<그림 2> 막 1:1-11의 본문

있듯이 BE는 성경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상생활에서 쓰는 쉽고 분명한 말로 본문을 설명하고 있다. 셋째로, 본문 해설은 특정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거나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독자들에게 묵상과 지혜와 가르침의 일차 자료가 되도록 돕는 기능을 하도록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해설은 프랑스성서공회와 캐나다성서공회가 서로 연합하고,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복음주의 교회가 함께 서술하고, 검토하여, 국제적이고 초교파적인 방향성을 갖는다.

3.2. 성경의 가치

계속해서 BE의 머리말에서는 ‘성경, 하나의 특별한 책’(La Bible, un livre exceptionnel, XIII-XIX쪽)이라는 제목을 가진 성경에 대한 개론이 성경의 가치를 설명한다. 또한 이 개론에는 ‘성경, 하나의 매우 큰 도서관’(La Bible, une très grande bibliothèque)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서관’(Une bibliothèque au service du projet de Dieu)이라는 소제목 아래, 성경의 짜임새 및 정경과 외경의 문제,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과 이를 위해 BE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3.2.1. 성경, 하나의 매우 큰 도서관

BE는 성경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반포된 책으로, 문화와 지혜와 영적 묵상의 기념물이라고 소개한다. 성경은 1000년 이상에 걸쳐 기록된 문서로, 유럽 사람의 관점에서 고대 근동의 종교와 문화(수메르, 바벨론, 이집트, 그리스 등)와 접촉하고 대화한 지식의 보고임을 밝힌다. 또한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극동에서는 힌두교(주전 1000년), 도교(주전 6세기), 불교(주전 6세기), 유교(주전 5세기) 등의 다른 종교와 지혜 사상이 형성된 것을 소개하고, 주전 450년에서 300년 사이에 활동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희랍의 철학자들과, 성경의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 이슬람교의 코란을 언급한다.

BE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여, ‘구약’이라는 표현과 함께 ‘첫째 계약’(première alliance)이라는 표현을, ‘신약’이라는 표현과 함께 ‘새 계약’(nouvelle alliance)이라는 표현도 사용한다. 계속해서 BE는 구약과 신약의 짜임새를 설명하는데, 최근에 나온 *ZeBible*이 BE와 마찬가지로 『상용 붙어 성서』를 번역 성경으로 삼고 있

지만, 히브리 성경의 짜임새인 오경, 예언서, 성문서의 삼분법에 따라 구약 성경의 순서를 정했다면, BE는 오경, 역사서, 시가서/지혜서, 예언서의 사분법에 따라 구약성경을 나열한다. 신약은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의 편지들과 기타 편지들, 계시록의 짜임새를 따른다.

3.2.2.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도서관

성경은 여러 사상과 문화를 반영한 도서관이지만, 여러 책을 되는대로 모아 놓은 덩어리는 아니다. 과거에서 미래, 시작에서 완성, 씨앗에서 풍부라고 하는 하나의 논리가 성경의 짜임새를 주재한다.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역사에서 맞닥뜨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해석하고 이겨낸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대인은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구절, 예를 들어 폭력, 여성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태도를 발견하면 놀라게 된다. 이에 대하여 BE는 이러한 과거와 현대의 사상적 충돌을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배경에 따라 독자들이 긍정적으로 이해하도록 시도한다. 이처럼 BE는 비록 현대인이 과거의 문화나 사상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점진적인 이해가 반영되어있음을 말하고, 성경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라는 계획을 전하는 도서관이라고 표현한다.

이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도서관이라면, BE는 성경의 성격에 대해 설명한다. 첫째로 성경은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책으로, 2300개 이상의 현대어로 번역된 사실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고대역인 칠십인경과 불가타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한다. 둘째로 BE는 비록 성경의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책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위하여 성경 사본과 본문 비평과 사해 사본에 대하여 설명한다. 셋째로, 성경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이 단락에서 BE는 정경과 외경, 또한 이러한 성경에 대한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BE가 선택한 프랑스어 번역본인 『상용 불어 성서』의 특징을 설명한다. BE의 편집진은 기능 동등성(équivalence fonctionnelle)⁴⁾의 원칙에 따라 번역된 이 성경이 성경을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상용 불어 성서』를 번역본으로 선택한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BE는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 읽은 독자와 처음 읽는 독자를

4) ‘기능 동등성’의 원칙을 비롯한 여러 번역 기술을 위해서는 곽성희, “현대 번역학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24 (2009), 157-179; 왕대일, “성서 번역 새로 보기 - 문예적 번역과 문학 기능 동등성”, 『성경원문연구』 20 (2007), 52-73을. 『상용 불어 성서』를 비롯한 프랑스어 성경 번역사를 위해서는 http://www.bskorea.or.kr/about/worldtrans/prabib/prabib_list.aspx를 보라.

위하여 성경을 읽는 방법을 따로 소개한다. 성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독자는 각 책의 개론과 해설을 활용하여 지식을 심화하고 본문이 말하는 바를 스스로 깨닫도록 훈련할 것을 조언한다. 성경을 처음 읽는 독자를 위해서는 성경이 장과 절로 이루어져있는 것부터 설명하고 있으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말고 중요한 책이나 본문부터 읽을 것을 권한다. 계속해서 BE는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용어 해설과 지도와 도표를 사용하여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한다. 또한 성경을 깊이 읽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본문과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질문하며 읽는 방법이다. 곧 독자에게 충격적이거나 이해하기 힘들거나 좋거나 거북스런 본문은 무엇인지, 독자가 읽는 본문이 하나님과 인류와 독자 자신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며 성경을 읽으라고 제안한다. 개론의 마지막에서는 성경을 읽는 여러 이유에 대해, 호기심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책의 내용을 알기 위해,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나사렛 예수를 알기 위해, 기독교를 이해하기 위해, 신앙 발달을 위한 것 등 여러 이유를 소개한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여러 계층의 독자들을 위해 성경의 개방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본문 해설의 내용과 특징

4.1. 개론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나 『굿뉴스 스테디 바이블』이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복음서 등에 대한 개론을 제공하지만,⁵⁾ BE는 곧바로 각 책에 대한 개론으로 들어간다. 또한 다른 해설 성경과 다르게 각 책에 대한 개론의 분량이 한 쪽을 넘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간단하다.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에서는 BE의 133쪽에 있는 레위기 개론을 그대로 옮기도록 한다.

‘레위기의 첫째 구절은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를 불러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책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이를 행

5) 이들에 대한 서평을 위해서는 왕대일,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구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 (2001), 41-55; 김창락,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 (2001), 56-68을 보라.

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18:5, 롬 10:5에서 인용)는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수많은 율법과 규정을 모세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없애는지, 그리고 '천막'이 정말로 '만남'의 장소가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규정에 따라 행해야 하고(1-7장), 제사장은 존경을 받아야 하고 명예롭게 처신해야 하며(8-10장), 백성 개개인은 가능한 한 육체의 부정함(11-16장)과 도덕적이고 제의적인 불충실함을 피해야 한다(17-27장).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19:2), 이것은 백성이 생명과 사랑을 지니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 근본적인 특징을 주지시키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19:18, 마 22:39 참조)는 계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에서였다.

현대의 독자를 자주 놀랍게 하는 이러한 율법들은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필수적인 사실을 끊임없이, 또한 온갖 방법으로 상기시킨다.'

4.2. 본문 해설

본문 해설은 독자들이 해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당하는 본문 옆에 위치해 있고, 성경 본문과 쉽게 구별하여 읽을 수 있도록 검정색을 사용하는 성경 본문과 달리 빨간 계열의 색을 사용하고 있다. 또 4000여개의 비교적 많은 양의 해설을 담고 있다. BE의 해설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BE의 레위기 해설과 *ZeBible*의 레위기 해설을 비교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4.2.1. BE와 *ZeBible*의 본문 해설

BE와 *ZeBible*의 본문 해설에는 해설 본문의 수와 해설을 위한 본문의 단락을 설정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레위기의 경우 BE는 99개의 해설을, *ZeBible*은 84개의 해설을 제공한다. 모든 책에서 BE가 *ZeBible*보다 더 많은 양의 본문 해설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BE는 레위기 전체를 단락으로 나누어 모든 본문을 해설하고, *ZeBible*은 때로는 단 한 구절에 대하여(예, 레 1:1), 때로는 한 장 전체를 해설(예, 레 1:1-17)하기 때문이다.

「성경원문연구」 35호에서는 *ZeBible*의 본문 해설의 특징을 다루었는데, 15-2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성경은 본문 해설에서도 이들의 호기심과 관심사를 만족시키도록, 현대의 언어와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비추어 본문을 해설하는 점을 살펴보았다.⁶⁾ 또한 특별히 *ZeBible*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이 해설 성경이 산모의 부정함과 짐승 도살의 문제와 동성애에 대하여 해설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BE의 해설과 비교해보면 두 성경 해설의 특징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산모의 부정함(레 12:1-8)에 대한 해설을 비교해 보자.

산모(12:1-8)

여러 고대 문명에서 출산한 여자는 피를 잃은 이유(4, 5, 7절)로 부정하게 여겨진다. 피에 연결된 어머니의 생명력이 출산으로 약해진다. 따라서 산모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또한 나머지 공동체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부과된 기간 동안 어머니는 제의 생활에 참여할 수 없다. 산모는 격리된 시간 이후에 정화되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백성의 생활로 되돌아올 수 있다. 남아에 대한 선호가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을 때 더 짧은 부정함의 기간을 설명한다.

여기에 주어진 규칙을 따르는 정결례는 눅 2:22-24에 거론된다(BE).

출산휴가(12:1-8)

법은 막 출산한 여자를 위한 ‘부정한’ 기간을 정한다. 사실상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여자는 생명을 낳는 행위에서 비난 받아서는 안 된다! 반대로 출산은 창조의 순간인데, 인간이 역사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결 의식이 끝날 때까지 격리의 기간을 규정하는 것은 아이와 아이 주변 사람을 위한 통과 의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ZeBible*).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ZeBible*은 산모가 아이를 낳아 부정해진다는 레위기의 본문을 출산휴가라고 이름 짓고, 정당한 창조 질서로 설명한다. 현대인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산모가 부정하다고 하는 진술을 산모를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오늘의 사고방식으로 쉽게 이해하게 한다. 반면에 BE는 산모의 부정함을 피 흘림의 관점에서 구약주변세계의 종교 사상에 비추어 설명함으로써, 보다 더 전통적인 해설을 제공한다. 다음으

6) 김선중, “<서평> *ZeBible*”, 365-367.

로 짐승 도살의 문제를 살펴보자.

생명의 값(17:1-16)

짐짐승을 죽이는 일은 고기를 먹기 위한 것이라도 종교 행위로 여겨졌다. 피를 흘리는 일은 생명에 지배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은 하나님께만 속한다. 도살하는 모든 짐승은 우선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는데, 이는 곧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막는 입법자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BE).

통제된 도살(17:3-5)

짐승 도살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도살된 모든 짐승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 짐승을 죽이는 일은, 비록 일상의 음식을 위한 것이더라도 여기에서 강조되는 거룩한 성격을 가진다. 현대 세계에서, 기업적 도살은 위생의 필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짐승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ZeBible*).

*ZeBible*이 짐승 도살의 문제를 현대 생태학과 짐승 윤리(animal ethics)의 관점에서 설명하여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 독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의 문제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제공한다면,⁷⁾ BE는 이보다 더 종교적인 관점에서 짐승 도살의 문제를 설명한다. BE는 적용보다는 해석에 더 많은 무게를 둔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민감한 토론의 주제로 떠오른 동성애에 대한 해설을 보자.

가증스런 행위 금지(20:1-21)

[...] 10-21절은 18:6-23의 성행위와 관련된 가르침을 되풀이한다. 서술된 열 두 개의 위반은 본보기가 되는 벌을 가한다. 생명의 힘은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성은 지도와 통제를 필요로 한다. 성행위에서 일곱 경우에

동성애(20:13)

레위기는 동성애 행위를 사형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단죄한다. 이러한 처벌은 오늘날의 독자에게는 놀라움을 준다. 법은 변화했다. 도덕은 사람의 인격과 사람이 하는 행위를 구별한다.

7) 하나님과 사람과 들짐승 사이에 있는 관계를 계약 신학의 관점에서 살펴본 글을 위해서는 김선중, “성결법전의 들짐승”, 『신학이해』 48 (2015), 95-119를 참조하라.

두 파트너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10-16절). 두 경우에 커플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17-18절). 세 경우에 남자와 여자는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진다.’ 이것은 ‘자식이 없 이 죽는 것’을 뜻한다(19-21절)(BE).

동성애 규정에 대한 해설에서 *ZeBible*은 동성애에 대한 최근의 학문의 연구 결과에 따라,⁸⁾ 전통적인 해석에 비하여 동성애에 대하여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동성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BE는 동성애와 관련된 본문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기존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4.2.2. 기타 BE의 특징적 해설

위의 단락에서 *ZeBible*이 성경 본문을 현대의 교회와 사회 현상에 적용하도록 신선하게 해설하고 있다면, BE는 보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본문을 해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는 앞의 서평에서 관찰한 *ZeBible*의 특징적인 본문에서 출발했다면, 이 단락에서는 BE의 해설 원칙과 신학의 경향을 반영하는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제사장이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자.

제사장의 역할(10:8-15)

율법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명령(10-11절)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11-15장의 명령을 예고한다. 제사장들은 자연의 요소들을 분리한 창조주의 예시를 따른

마시느냐 삼기느냐,
선택해야 한다!(10:8-11)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술 금지! 술사용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의식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들의 소비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사람의 약함을 인정함으로써, 성경은 철저한 입장을 선택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신에게 접근하기 위해 마약을 사용하는 다

8) 이에 대한 우리말 연구를 위해서는 허호익, “동성애에 관한 핵심 쟁점-범죄인가, 질병인가, 소수의 성지향인가?”, 「장신논단」 38 (2010), 237-260을 참조하라.

다(창 1:4, 6, 7, 18, 여기와 같은 동 른 문화와의 차이를 강조한다
사를 가짐). 구별하는 행위는 하나 (*ZeBible*).
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
여한다.

제사장들은 책임적으로 주님의
규정들을 가르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의 기능을 분명하게 완수하
기 위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모든 술을 삼가야 한다(BE).

*ZeBible*의 특징은 제사장이나 일반인이 술을 먹는 문제를 구약주변세계
에서 신과 접촉하기 위해 술이나 약을 사용한 것과 비교한다.⁹⁾ 이러한 언급
역시 술과 마약의 유혹을 받는 프랑스의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교훈
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 반면 BE는 레위기 10장 10절에서 하나님에게 속
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하는 일(לְרַב)이 창세
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두움, 물과 물 등을 분리
하신 일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적용보다는 신학적 해설에 관심
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레위기의 음식 규정에 대한 두 해설
성경의 해석을 살펴보자.

동물계의 조직(11:13-23)

짐승은 땅(2-8절), 물(9-12절), 하
늘(13-23)이라는 서식지에 따라 분
류된다. 양서류(10절), 주검을 먹는
새(13-19절), 날고 걷는 곤충(20절)
처럼 중간 지대에 사는 모든 것은
혐오감을 일으킨다. 동물계의 이
러한 분류는 창조 행위를 무엇보다
분리 행위로 여겼던 시대의 과
학을 반영한다. 불충분하게 구별
된 모든 짐승은 그 안에 최초의 혼

마련된 공간(11:1-47)

정결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한다. 따라서 부정함에 전염
되는 것을 끊임없이 피하도록 조
심해야 한다. 공간과 시간은 하나
님이나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 마
련되어야 한다. 정결함과 부정함
의 구분은 선과 악의 구분과 혼동
되지 않는다(*ZeBible*).

9)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 『예언자들(하권)』, 이현주 역 (서울: 종로
서적, 1991), 127-128을 보라.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사도 베드로의 환상(행 10:10 이하)은 매우 국제적이었던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이러한 레위기의 규율들에 직면한 어려움을 반영한다(BE).

BE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해설에 대한 관심은 레위기의 음식 규정에 대한 설명에서도 나타난다. *ZeBible*은 레위기 11장에서 정결법과 음식법의 문제가 선과 악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삶과 윤리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BE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분을 창세기의 창조 질서에 견주어 해석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주석의 입장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21:16-24)

무흠?(21:16-23)

몸의 결함은 사람의 완전성에 대한 훼손이고 제의를 집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능을 다하는 것을 방해한다. 주님께 바친 모든 짐승이 완전해야 하는 것처럼, 제사장은 어떠한 몸의 장애로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된다. 몸의 결함은 도덕적 잘못에서 오는 것이 아니므로, 장애가 있는 제사장은 제의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BE).

장애 금지! 몸의 완전성에 대한 관심이 제사 기능과 관련 있는가? 제의는 잘못된 질서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으로서 안정과 완전함을 지녀야 한다. 이것은 제의 식사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거부가 아니다. 오늘날 장애인은 법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어떤 시선과 어떤 실제적인 어려움을 직면해야 하는가?(*ZeBible*).

마지막 예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자. 레위기 21장을 따르면,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이는 오늘날의 사고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ZeBible*은 구체적인 삶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차별을 암시함으로써, 해설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장애인을 대하는 바른 지침을 내리고자 한다. 반면 BE는 이러한 레위기의 규정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한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앞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서 이해하려고 함으로써 성경을 긍정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다.

5. 평가

5.1. 좋은 점

2004년에 프랑스성서공회가 캐나다성서공회와 함께 내놓은 BE는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와 복음주의 교회가 함께 만든 해설 성경이다.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려, 지나치게 영적인 해석과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본문이 기록된 배경에 따라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저자가 본문을 기록한 역사의 배경에서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 기본적으로 역사비평 방법이 내건 해석 방법이기도 하다. 세 교파가 함께 논의하여 본문 해설을 쓰고 검토하기 때문에, 특정한 신학이 반영될 위험이 적고, 온건하고 건전한 신학 바탕 위에 해설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BE의 머리말이 말하고 있듯이, 독자들이 이 해설 성경을 읽는다면 다양한 성서 해석에서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 또한 성서학자와 목회자가 함께 작업함으로써, 신앙인들이 굳이 접근하기 힘든 주석이나 연구서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은 BE의 해설과 용어 해설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나치게 개교회 중심인 대한민국의 개신교회를 긍정적으로 자극한다. 더 나아가 개신교와 가톨릭의 성서학자나 목회자가 함께 교회와 사회와 겨레의 문제를 성령의 빛에서 조명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로 해설 성경을 제작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갖게 한다.

BE는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깔끔한 조판을 통하여 편집과 디자인의 측면에서도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고대 문서로서의 성경이 가장 현대적인 책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머리말은 성경에 대한 개론과 BE를 활용하는 방법을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줌으로써, 효과적으로 해설 성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5.2. 아쉬운 점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BE는 성경 전체의 머리말 다음에 곧바로 성경 각 책의 머리말을 제공함으로써, 오경, 역사서 등에 대한 개론은 소개조차 하지 않는다. 비록 성경의 짜임새를 설명하는 BE의 머리말에서 이 주제를 짧게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성경의 큰 단락이 시작하는 곳에서 오경, 역사서 등에 대한 개론을 추가했다라면, 독자들에게 더 좋은 길잡이 노릇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경 각 책의 머리말에서 내용과 형식, 분량 면에서 통일성이 부족하다. 어느 책은 개론이 거의 한 쪽 분량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하면(예를 들어, 지혜서), 어느 책은 10줄 미만으로 기술되고 있기도 하다(예를 들어, 역대하). 이처럼 분량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것은 BE의 편집진이 서로 다른 집필진의 집필 속도나 분량을 철저히 통제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⁰⁾ 또한 모든 책의 서론에서 서론의 내용과 책의 짜임새를 글로만 서술하지, 도식화하지 않음으로, 독자들이 한 눈으로 책의 짜임새를 파악하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ZeBible*의 경우에는 각 책의 개론을 ‘책을 읽는 이유, 양식과 내용, 짜임새, 주요 인물’로 구성하고 있다면, BE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정한 형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교과와 교단이 함께 작업을 하여 건전한 신학 해설을 제공한 것은 장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문에 대한 해설이 주로 신학적으로 해설하는 데에 주안점을 주고 있으며, 때로는 신학 논쟁을 기피하는 인상도 준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독자들을 고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고대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날 사고와 상황과 맞지 않을 때,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역사의 배경에서 성경을 옹호하는 쪽으로 해설을 집필한다는 편집진이 정한 집필 방향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이러한 방식의 본문 해설은 성서학이 다른 분야의 학문에 비해 천천히 변화한다는 점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와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지침을 주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프랑스성서공회가 2011년에 BE와는 해설의 내용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ZeBible*을 새롭게 내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BE가 전통적이고 온건하고 보수적인

10) 각주 3에서 언급한 Jean-Louis d'Aragon은 7년 동안 진행할 때, 서로 다른 집필진의 집필 속도와 분량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소개하였다.

신학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ZeBible*은 혁신적이고 삶에 천착된 실제적인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독자들이 BE에서 부족한 점을 *ZeBible*에서 보충할 수 있다면, 균형 잡힌 성경 해설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맺음말

성경은 해설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독자와 성경을 기록한 저자, 기록된 본문 사이에는 언어와 시간과 문화와 지리와 사고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크고 작은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을 해설한다고 할 때, 모든 시간과 장소나 상황에 들어맞는 완전무결하고 유일한 해설 성경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성경을 읽는 독자가 처한 교회나 사회나 역사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에 맞는 해설 성경도 반드시 필요하다.

프랑스성서공회는 2004년에 BE를, 2011년에 *ZeBible*을 교회와 세상에 내놓았다. 두 해설 성경 모두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얻어낸 결과물이며, 서로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BE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와 기록된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의미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ZeBible*은 독자가 처한 특정한 상황에서 본문을 읽고 해설하려고 시도한다. 대한민국의 교회도 신학자와 목회자, 개신교회와 가톨릭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 읽고 해석하여,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Keywords)

해설 성경, 프랑스성서공회, 캐나다성서공회, 기능 동등성, 레위기.

Bible Expliquée, French Bible Society, Canadian Bible Society, Functional Equivalence, Leviticus.

(투고 일자: 2015년 7월 30일, 심사 일자: 2015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15년 9월 4일)

<참고문헌>(References)

- 곽성희, “현대 번역학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24 (2009), 157-179.
- 김창락,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 (2001), 56-68.
- 김선중, “<서평> *ZeBible*”, 「성경원문연구」 35 (2014), 351-369.
- 김선중, “성결법전의 들짐승”, 「신학이해」 48 (2015), 95-119.
-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 『예언자들(하권)』, 이현주 역, 서울: 종로서적, 1991.
- 왕대일,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구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 (2001), 41-55.
- 왕대일, “성서 번역 새로 보기 - 문예적 번역과 문학 기능 동등성”, 「성경원문연구」 20 (2007), 52-73.
- 허호익, “동성애에 관한 핵심 쟁점-범죄인가, 질병인가, 소수의 성지향인가?”, 「장신논단」 38 (2010), 237-260.
- http://www.bskorea.or.kr/about/worldtrans/prabib/prabib_list.aspx
- <http://www.jesuites.org/LaBibleExpliquee1.htm>

<Abstract>

**Book Review — *La Bible Expliquée*
(Villiers-le-Bel, Société biblique française - Bibli'O, 2004)**

Sun-Jong Kim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This paper reviews *La Bible Expliquée*(the Explained Bible) published in 2004 by the French Bible Society, presents the commentaries of this Bible, and analyzes its pros and cons.

To achieve this aim, we will use the following processes. First, by considering the foreword of *La Bible Expliquée*, we will try to grasp its purpose and orientation with its theological features. Seco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theological position of this Bible, we will compare it with *ZeBible* published in 2011 by the same bible society.

La Bible Expliquée is an international and interdenominational Bible in that the French Bible Society and the Canadian Bible Society have cooperated, and that Protestants, Catholics, and Evangelicals have worked together. This explication Bible tries to give the explanation of the difficult passages in the Bible to the readers with little theological education. That is why this Bible uses easy and evident terms that all can read and understand. Its commentaries do not arouse thorny theological controversies. When certain biblical passages conflict with present ideas, *La Bible Expliquée* tends to explain them positively by emphasizing their historical contexts and vindicating the Bible's qualification as a canon. In this regard, we can evaluate that this Bible is more moderate and conservative than *ZeBible*. *La Bible Expliquée* was made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preceding study bibles. While the Life Application Study Bible is fundamentalistic and *La Bible des Communautés Chrétiennes* has much anti-semitic tendencies, *La Bible Expliquée* seeks to avoid dogmatic and spiritual interpretations, and takes out the theological meanings in the light of the Holy Spirit. The reader who wants to get biblical answers to real-life problems may be helped by *ZeBible*.

There is a deep gap between the Bible written in the ancient times and the

present Bible readers in the aspects of time, geography, language, and ideas, therefore requiring the Bible to be explained. However it is impossible to make a perfect and unique explication Bible because the readers are situated in different contexts from one another. Hence, diverse explication Bibles are needed for various objectives and directions.